

여수중앙병원 전남 첫 공공 심야 어린이병원 운영

여수시와 협약... 평일 밤 11시·주말 오후 6시까지 진료 운영비 조례 제정 소아청소년과 의사 추가 채용 등 지원

밤늦게도 18세 이하 어린이·청소년이 진료받을 수 있는 '공공 심야 어린이병원'이 전남에서는 처음으로 여수에 마련된다.

여수시는 여수중앙병원(미평동)과 지난 17일 시청실에서 공공 심야 어린이병원 운영협약을 맺었다고 18일 밝혔다.

공공 심야 어린이병원은 평일에는 밤 11시까지, 토요일 및 공휴일 주말과 공휴일에는 오후 6시까지 진료한다.

여수중앙병원은 현재 근무하고 있는 소아청소년과 1명에 의사 2명을 추가 채용해 내년 1월부터 심야병원을 운영할 방침이다.

심야병원에는 소아청소년과 의사 3명과 간호사 3명, 원무과 직원 1명, 방사선사 1명 등 총 8명이 상주 근무할 예정이다.

여수중앙병원은 의료 인력 인건비를 포함해 심야

병원을 운영하는 데 드는 2억원의 비용을 부담하기로 했다.

여수시는 '여수시 공공 심야 어린이병원 지원 조례'를 제정해 운영비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여수시는 공공 심야 어린이병원 참여 공모를 진행했으며, 지난 7월 여수중앙병원이 참여 의사를 밝혀왔다.

이계일 보건소 보건행정과 약물관리팀장은 "전남지역에서 연봉 2억원대에 달하는 소아청소년과 의사를 '모셔오는 건' 하늘의 별 따기와 같다"며 "심야 어린이병원을 운영할 소아청소년과를 수소문하던 중에 여수중앙병원이 참여 의사를 밝혀와 다행이다. 전남의 다른 자치단체들도 심야 어린이병원을 추진하고 있지만, 의료 인력을 구하는 게 관건"이라고 말했다.

공공 심야 어린이병원은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추진됐다. 밤늦은 시간대 응급실을 이용하면서 드는 비용을 최소화하고 소아·청소년에 필수 의료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해서다.

여수지역에서 운영되는 소아청소년과는 모두 8곳으로, 여수시 안산동 참조은연합의원은 밤 9시까지 진료를 하고 있다.

광주·전남지역에서는 지난 9월 광주기독병원에 공공 심야 어린이병원이 처음 문을 열어 진료를 시작했다.

전남에서는 여수가 처음 심야 어린이병원을 시작했으며, 순천·광양·나주 등 자치단체가 이를 검토하고 있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이번 협약은 소아·청소년 경증환자에게 적시에 의료 서비스를 지원코자 시와 시의회, 민간이 모두 협력한 결과"라고 말했다.

한편 평일 야간과 휴일에 소아 경증환자에 대해 진료를 하는 '달빛어린이병원'은 전국에서 모두 50곳 운영되고 있다.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전남과 경북, 강원, 울산은 한 곳도 운영되지 않고 있다.

/여수=김청화 기자·동부취재본부장 chkim@



여수시(시장 정기명·오른쪽 네 번째)와 여수중앙병원이 지난 17일 전남 최초 '공공 심야 어린이병원' 운영(내년 1월)을 위한 협약을 맺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여수시 제공>

고흥문화회관 대공연장 개선 공사... 11월1일 재개관

18억원 들여 음향시설 등 교체

고흥군은 고흥문화회관 대공연장(김연수실) 개선 공사를 마치고 오는 11월1일 다시 문을 연다고 18일 밝혔다.

개선 공사에는 총사업비 18억원(도비 7억2000만원·군비 10억8000만원)을 들였다.

무대 기계를 바꾸고 음향 반사판을 설치하는 등 공연 음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

객석 의자를 바꾸고 고화질 프로젝터를 설치하는 등 관객 편의도 고려했다. 관객과 출연진 모두의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무대 기계 구동부에는 자동제어 시스템을 도입했다.

고흥군은 지난 5월 공사를 시작해 이달까지 안전진단을 마무리했다.

새로 단장한 대공연장은 다음 달 1일 열리는 '49회 고흥군민의 날'에서 선보인다.

대공연장 김연수실은 연면적 1155㎡, 1층 315석·2층 257석 등 총 572석 규모이다.

합창과 오케스트라 등 다양한 공연 관람 기회를 군민에게 제공하기 위해 고흥군은 이번 개선 공사



6개월간 개선 공사를 한 고흥문화회관 대공연장 김연수실 내부 모습. <고흥군 제공>

를 진행했다.

고흥군 관계자는 "고흥문화회관 김연수실은 우리 군의 유일한 공연장"이라며 "군민들의 다양한 공연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시설개선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흥=주각중 기자 gju@kwangju.co.kr

광양 특수장애아동 희망의 징검다리 6기 사업

내년 9월까지 숲 체험·재활 치료

광양지역 특수장애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돕기 위한 '특수장애아동 희망의 징검다리'가 지난 2018년 시작한 뒤 올해 6번째 활동을 시작한다.

재단법인 광양시어린이보육재단은 지난 17일 광양시육아종합지원센터 대강당에서 '6기 특수장애아동 희망의 징검다리 사업' 경과 보고회 겸 발대식을 열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포스코 광양제철소 포스코1%나눔재단, 여수광양항만공사, 포스코휴먼스 등이 참석했다.

이 사업은 지난 2018년 1기를 시작으로 올해 6

기를 맞았다.

해마다 지역 특수장애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돕기 위한 활동을 펼쳐왔다.

장애 전담·통합 어린이집 4곳에 있는 장애아동 563명과 숲 체험과 재활 치료 등을 함께 했다.

그동안 숲 체험은 484차례 진행했고, 음악·미술·놀이치료는 1773회 했다.

올해 6기 사업은 이달부터 내년 9월까지 진행된다.

포스코1%나눔재단은 6000만원, 여수광양항만공사 3500만원, 포스코휴먼스 500만원 등 총 1억원의 사업비를 후원받았다.

후원금은 전년대비 1000만원 늘었다. 이들 기

업·기관이 후원한 총사업비는 3억3500만원에 달한다.

이날 발대식에는 정인화 광양시장과 서영배 광양시의회 의장, 이광용 어린이보육재단 이사장, 이철호 포스코 광양제철소 부소장, 박성현 여수광양항만공사 사장, 최병률 포스코휴먼스 CS지원1실장, 어린이집 관계자, 학부모 등 약 80여 명이 참석했다.

광산특수어린이집 어린이들의 난타 공연, 해화 유치원 드림 공연으로 행사를 시작했다.

지난 5기 사업 경과보고를 하고, 사업 추진에 힘쓴 보육교사·자원 봉사자에 감사패와 표창을 줬다.

이후 광산특수어린이집 등 4개 어린이집 원장들은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선서를 했다. 아동 부모들은 후원에 감사하는 편지로 화답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무공해 전기버스 단풍철 지리산 성삼재 누빈다

23인승 버스 하루 5회 운행

매년 걱정 없는 전기버스가 지리산 성삼재를 누빈다.

국립공원공단 지리산국립공원전남사무소는 오는 27일부터 11월5일까지 열흘간 '성삼재도로 무공해 전기버스 여행'을 무료로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전기버스 운행은 가을 단풍객이 몰리는 성삼재도로의 차량 정체를 완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매일이 없는 전기버스를 운행하면서 국립공원 탄소배출 절감도 꾀했다.

23인승 전기버스는 천은사 주차장부터 성삼재 주차장까지 10km를 달린다. 버스 길면에는 국립공원 깃대종들의 모습이 그려졌다.

하루 5회(오전 9시 20분, 10시 20분, 10시 40분, 11시 20분, 오후 1시 20분) 운행한다. 이번 탐방은 총 4시간 20분가량 진행될 예정이다.

국립공원공단 예약시스템에서 '노고단 탐방로 예약제'와 '성삼재도로 무공해 전기버스 여행'을 둘 다 신청한 탐방객 가운데 하루 100명이 승객으



지리산 성삼재도로를 달리는 국립공원 무공해 전기버스. <국립공원공단 제공>

로 선정된다.

선정된 탐방객은 천은사 주차장에 차를 두고 전기버스에 탑승한 뒤 성삼재도로에 얹힌 7가지 이야기를 들으며 이동한다. 종착지인 성삼재 주차장부터 노고단까지는 걸어서 오르며 된다.

탐방을 즐긴 뒤 성삼재 주차장에서 전기버스를 타고 천은사 주차장으로 돌아오면 된다.

차수인 지리산국립공원전남사무소 자원보전과장은 "가을 성수기 성삼재도로 교통혼잡을 완화하고 국립공원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1100m 고지대인 성삼재에 전기버스를 무료로 운행하게 됐다"며 "기후위기 시대 지리산국립공원을 방문하는 탐방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

구례 원도심서 24~26일 '꽃 채운 국화전시회'

국화 작품 888점 선 보여

구례군 도시재생 사업부지인 구례읍 봉동리 일원에서 24~26일 사흘간 '2023 꽃 채운 국화전시회'가 열린다.

행사가 열리는 곳은 옛 구례제일교회 인근 부지로, 구례군은 이곳에서 도시재생 세포마켓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5월 이 부지를 사들여 조성사업을 벌이고 있다.

구례군은 그동안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거나 범죄 발생 가능성이 있던 이 장소에서 국화전시회를 열어 아름다운 골목길로 바꾸고자 했다.

전시회는 '꽃 채운 국화사랑회'가 주최하며 78명의 회원이 원도심 곳곳을 꾸몄다. 대국, 소국,

현애국 등 888점의 국화 작품을 선보인다.

버려진 화분과 콩나물시루를 재활용했고, 대나무로 현애국 지주를 만들었다.

또 목화, 산수유, 모과, 석재 등 가을 정취를 자아내는 작품도 함께 선보일 예정이다.

부대 행사로 마련한 '골목 베품시장'에서는 8명의 재방사가 우리 밀 빵을 판매한다.

라이프 맥걸리와 붕어빵, 늪은 호박전 등 먹거리와 생활 공예 소품도 다채롭게 선보인다.

지역민들은 색소폰, 하모니카, 오카리나 등을 연주하는 가을밤 거리 공연 무대에 오른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꽃 채운 국화전시회에 많은 이들이 찾아 국화향기와 가을 정취를 만끽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



곡성군이 최근 2023년도 주요 현안사업 추진상황 보고회를 열고 49건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곡성군 민선 8기 공약 49건 중 58.2% 이행

완료 10건·추진 37건

곡성군은 민선 8기 1년여를 맞아 공약 49건 가운데 완료 10건·추진 37건 등을 보이며, 공약 이행률은 58.2%로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

공약 이행률은 지난 3월 말 50.0%(완료 3건), 6월 말 52.1%(완료 4건), 9월 말 58.2% 등으로 늘었다.

곡성군은 올해 3분기 동안 공약 사항 6건을 추가 완료했다. 곡성 출신 청년이 지역기업에 취업하면 정착금 300만원을 주는 '청년 정착지원금'과 만 13~18세 청소년에 연 20만원을 지원하는 '문화바우처카드' 등이 완료 사업에 포함됐다.

반면 '청년마을 청백스마트 빌리지 조성 사업'과 '곡성스포츠타운 조성' 등은 정부 공모사업 탈락과 다른 사업과 연계 필요성 등을 이유로 부진 사업에 꼽혔다.

한편 곡성군은 최근 군청 소통마루에서 이귀동 부군수 주재로 2023년도 주요 현안사업 추진상황 보고회를 열었다. 이번 보고회는 간부 공무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올해 계획한 주요 현안사업 49건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부진 사업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보고회가 진행됐다.

올해 현안사업에는 ▲곡성군 청사 건립 ▲곡성형 유토피아 시범마을 조성 ▲청년농업인 인큐베이팅 허브센터 구축 ▲농촌신활력 플러스 사업 ▲곡성 토란도란 농촌융복합 산업지구 조성 ▲섬진강 동화정원 조성 ▲엘저터 주민참여 문화공간 조성 ▲곡성 역사박물관 건립 ▲정혜박해 평화순례길 조성 ▲곡성군 구원지구 농촌공간 정비 ▲신규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조성 ▲곡성 운곡특화농공단지 조성 ▲죽곡 공공하수처리장 설치 등이 포함됐다. /곡성=박종태 기자 pjt@kwangju.co.kr

11월10일까지 보성다향대축제 아이디어 공모

보성군은 오는 11월10일까지 '2024년 제47회 보성다향대축제 아이디어 공모전'을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으며 라우드소싱 홈페이지(loud.kr)에서 신청하면 된다.

공모 분야는 축제 행사안 아이디어, 축제 문구 등 2개이다.

축제 행사안은 보성다향대축제와 보성차·문화 관련한 고유한 핵심 행사를 제안하면 된다. 100명 이상의 불특정 관공객들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 축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차별화된 행사 등 주

제는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축제 문구는 보성다향대축제의 독창성, 활용성, 적합성, 대중성 및 축제의 비전을 담은 내용을 주제로 한다.

8개 작품이 입상작으로 선정된다. 수상자는 10만원에서 최고 70만원의 상금을 받는다.

입상작은 앞으로 2024년 47회 보성다향대축제에 활용될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문화관광 축제인 '보성다향대축제'는 해마다 5월 초 한국차문화공원 일원에서 열린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